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제49회 도민체육대회(옥천 개최)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별 하나

도중환

흐린 차창 밖으로 별 하나가 따라온다
참 오래되었다 저 별이 내 주위를 맴도는 지
돌아보면 문득 저 별이 있다
내가 별을 떠날 때가 있어도
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 별처럼 있고 싶다
상처받고 돌아오는 밤길
돌아보면 문득 거기 있는 별 하나
괜찮다고 나는 네 편이라고
이마를 씻어주는 별 하나

이만치의 거리에서 손 흔들어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있고 싶다



도중환

• 시인, 청주 출생, 문학박사
• 시집 <고두미마을에서>, <점시꽃당신>, <해인으로 가는 길> 등
• 신동엽창작상, 정지용문학상, 윤동주상 등 수상,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

Contents

Vol.207_November 2010

- 발행일 2010. 11.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 편집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전화 (043) 220-5124
- FAX (043) 220-5119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9대 의회 일문일답식 첫 도정질문
4	지역 현안 적극 대응 -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노력
5	지역 현안 적극 대응 - 세종시특별법 제정 촉구
6	지역 현안 적극 대응 - 골목상권 보호 적극 나서
7	상임위원회 활동
13	도정질문 요지
18	주요 처리 의안
19	의정활동 이모저모
23	의정일기

일문일답식 첫 도정질문 호평

‘올해 실시된 충북도 국정감사 보다 낫다’ 언론 평가
집행부 정책 견제기능 강화 ·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



제9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일문일답식 도정 질문이 집행부 정책 견제기능 강화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라는 성과를 거둔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 5대 운영과제 중 하나로 도정질문 방법을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 일답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제295회 임시회에 처음 시행했다.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충주1),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단양),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청주5),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청원1),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청원2) 등 5명의 의원이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별였다.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요 정책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도정질문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최근 충북 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보다 훨씬 더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의회는 그동안 1년에 2회로 한정해 오던 도정 질문을 수시로 개최해 정책견제 기능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도정질문 요지 : 13 ~ 17면)

충북도의회 의정활동 지평 넓혔다

- 충북도 - 도교육청 무상급식 비용분담 합의 중재
- 협상단 구성, 기관 이해관계 대립에 조정력 발휘



일하는 의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협상력과 조정력을 발휘하면서 의정활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자 도의회는 협상지원단(단장 손문규 부의장)을 구성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부단체장 정책협에서 급식단가를 초등학생의 경우 1,500원에서 1,800원, 중학생은 2,2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3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총 소요액을 식품비, 종사자 인건비 등 학부모 부담 급식비만을 포함한 644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도교육청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무료급식 사업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을 포함해 901억원으로 평가했다.

도와 도 교육청간 분담비율도 3:7에서 5:5까지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양 기관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고, 주민들의 걱정도 커졌다.

이에 그동안 양 기관의 협상 타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도의회는 손문규 부의장, 최미애 교육위원장, 박종성

예결특위위원장, 심기보 정책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정책복지 위원들로 협상지원단을 꾸려 중재에 나섰다.

협상지원단은 지난 10월 11일 양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협상안은 총 소요액으로 충북도에서 주장한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에 교육청이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해 지원해 온 인건비 90억원, 특수학교 지원비 6억원을 포함해 모두 565억원으로 산출하고 각각 50%(282억5000만원)씩 부담하는 안이다.

1차 협상에 이어 19일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2차 회의를 갖고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협상안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50 대 50으로 234억5000만원씩 부담하되,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가 65억500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협상안을 기반으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11월 7일 최종 합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합의안은 2012년까지 무상급식 총 소요액 740억원(급식비 650억원, 인건비 90억원) 가운데 충북도와 시·군이 340억원, 도 교육청이 400억원을 분담하는 것이다.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세종시특위 활발한 활동 · 도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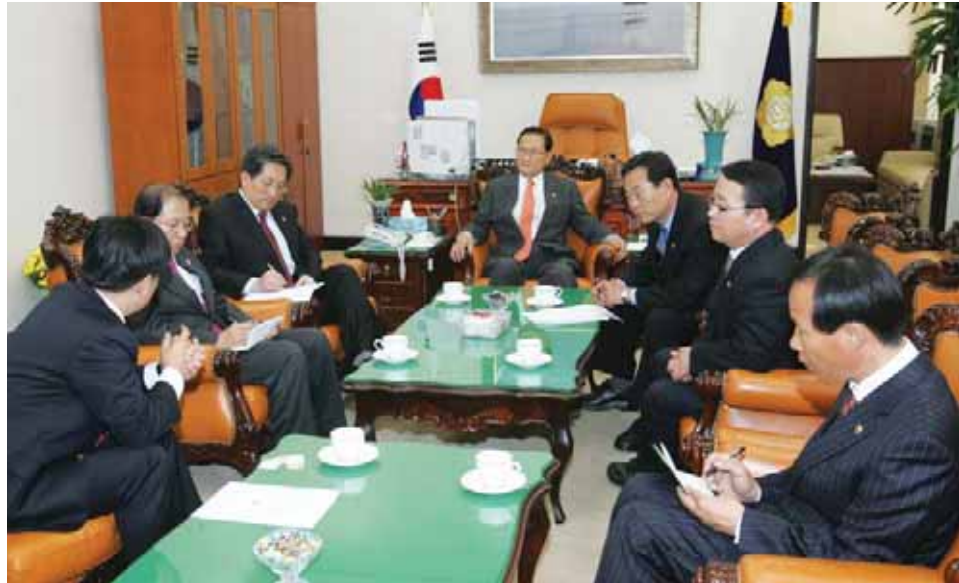
도의회가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활동을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제정 등 쟁점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보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할 것,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관할구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입여부를 결정할 것 등이다.

지난 9월에 구성된 세종시 특위는 편입예정지역인 강내면 3개리와 부용면 8개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언론사의 정책토론회 및 국회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도의 입장을 건의문에 담았다.

세종시 특위는 건의문 채택 후 11월 4일 국회를 방문해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으며 앞으로, 세종시 설치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시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 국회 방문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등은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주민간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고 조속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첫 째,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 둘 째,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하라
- 셋 째,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 넷 째, 관할구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입여부를 결정하라
- 다섯째, 불안에 떨고 있는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0. 10. 18.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 나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사전예고제 조례제정 추진·관련법 제정 촉구



▲청주시 가경동 천막농성장 찾아 SSM 대책 협의

충북도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삼성 테스코의 SSM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

택해 관련기관과 기업 등에 보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충북도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법망을 피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바꿔 기습 출점하려는 삼성 테스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입점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충북도에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관련 법률제정 등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 테스코의 홈플러스(SSM)는 현재 청주시 용암점 등 3곳의 개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와 SSM 사전예고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SSM입점 강해시 시민들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제9대 의회 운영방향·과제설정을 위한 토론회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는 10월 20일 충청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9대 충청북도의회 운영방향과 과제 설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9대의회가 도민의 열망을 품에 안고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향후 4년간 도의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각계인사의 토론 과정을 거쳐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도의회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충북대 이재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도의회 박문희 운영위원장의 ‘충청북도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5대 운영과제’와 충청대 남기현 교수의 ‘제9대 충청북도의회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



고 도의회 박종성 예결위원장, HCN(충북방송) 노영원 보도·제작본부장, 청주YMCA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영경 관장, 도 이정렬 정책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건 등 6건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의원)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실시된 임시회 기간 중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먼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96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22일~12월 24일(33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23일~12월 2일(10일간), 2011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은 12월 3일~12월 8일(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기간은 12월 9일~12월 13일(5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일시를 행정사무감사일정의 마지막 날인 12월 2일 실시하고, 감사의 주요내용은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12월 2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그밖에도 제296회 정례회 회의시 도정질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12월 14일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 · 「드림 스타트」 청주센터 방문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드림 스타트(Dream Start) 청주센터에 대한 현지확인과 자문위원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10월 14일 실시한 드림 스타트(Dream Start) 청주센터에 대한 방문에서는 사업내용 및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드림 스타트(Dream Start)란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6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국정 핵심과제이며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 복지 사업이다.

외국의 유사한 제도로는 호주의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를 들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개의 센터가 있고 도내에는 성화동 소재 청주센터를 비롯하여 충주, 제천, 진천, 음성에 모두 5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책복지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한장훈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과 충주대 한규량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 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친화지표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갖고 도 노인복지 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6회 정례회에 실시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출석, 제출 요구자료(188건)를 확정했다.

청주의료원 방문해 노후병동 신축계획 확인·의결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였다.

조례안은 김양희 의원이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 등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발의한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고, 그 외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신축과 관련

하여 보은군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추진할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옥천소방서 신축 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을 현지방문하여 노후된 현 병동시설 확인과 신축계획을 자세히 파악 후 모든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6일 ~ 10월 12일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진주종합경기장 내 충청북도체육회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 후 필승의 결의로 경기에 전력하고 있는 육상, 배구, 복싱선수에게 힘찬 응원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산업경제위원회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중단 촉구·사무감사 준비 박차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심사,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11월 23일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계획서에서 감사목록 건수가 작년보다 18건이 늘어난 256건으로 특히, 민선5기 출범후 새롭게 추진되는 경제 및 농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이번에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특산물 상설전시 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도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개점과 관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아파트 품질보증을 위한 검수단 설치 · 운영조례 제정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하고,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김재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파트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품질검수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과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검수 대상 아파트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아파트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아파트 시공업체에게는 성실한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기간, 감사서류 제출 목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하여 제9대의회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의정자료 수집을 통하여 파악한 도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교육활동 우수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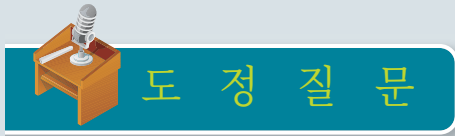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4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충북지역의 교육활동 우수 농·산촌 작은 학교를 방문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0월 14일 실시한 보은 수정초등학교와 청원 동화초등학교에 대한 현지방문에서는 교육활동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학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10월 15일에 실시한 단양 가곡초

중학교 대곡분교에 대한 방문에서도 학교시설 및 교육현장을 참관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도내 100명 이하 규모의 작은 학교는 초·중·고 통틀어 약 50%에 이르는 현황으로, 농·산촌 작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결국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우리나라 농산업의 유지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고향이라는 정서적 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인식하고, 폐교위기에 몰려있는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우선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기로 하였다.



김동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오송메디칼 그린시티사업의 실체와 도민을 현혹시킨 의혹 관련

Q 실제 MOU를 체결한 외국업체 대부분이 실제 투자자가 아닌 해외 자문 비즈니스 법인임에도 그 내용을 과장되게 언론에 보도하여 도민들이 사실을 오인토록 한 이유는?

A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 MOU를 체결한 기관은 직접투자당사자가 아니며, MOU 당사자들은 오송·오창 등지에 설립된 학교와 병원시설에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는 시설투자자와 프로그램 참여자가 별도로 참여하게 됩니다.

Q MOU를 체결한 법인에 제안서 작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데, 보상금을 주고 MOU를 체결해 온 정황에 대한 도의 입장은?

A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 충북도에서 미화 10만불을 갖다가 마이애미대학교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BMC와 마이애미대학교간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으며, 10만불은 BMC에서 마이애미대학교에 지불하는 것으로 충북도는 직접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Q 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은 오송메디칼 그린시티사업이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과 MOU에 거액을 지불하면서 체결하고 MOU체결 법인체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자문컨설턴트회사

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용으로 과장되게 발표하면서 도민들을 현혹한 것에 대한 입장은?

A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 오송메디칼 그린시티는 2009년 9월부터 하버드 협력병원체인 PHS와 그 다음에 CREC, 그 다음에 마이애미대학교, 그 다음에 에모리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선거용은 아니었음. 또한 해외 유치한 4개 기관은 컨설턴트기관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Q 자본금 3억원의 부동산업으로 등록된 BMC가 2010년 4 5월경 주가가치를 33배로 높여 약 100억원으로 주식매각을 시도한 사건과 BMC가 충북도에 보증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설명?

A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 BMC에서 자신의 주식을 33배로 높여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경제활동이므로 관여할 바가 아니며, 보증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Q 충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에 오송메디칼 그린시티사업 SPC에 참여를 해 달라는 공문 보냈다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유는?

A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안, 즉 사업구상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음, 그 이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도 정 질 문

김희수 의원(산업경제위원회)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관련

Q 단양의 최대 현안인 수중보 건설사업은 정부가 충주댐 건설을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호반의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일부는 뿔뿔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2,600여 가구 1만 3,000여 명은 현 신단양 이주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매년 맨바닥만 드러나는 강만 보고 군민들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중보 건설은 1989년 9월 28일 수자원공사에 청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으며 현재 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착공계만 제출되었는데 빠른 착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 현재 댐 수위가 139.6m로 시공 가능 수위는 125m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5월경이 돼야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376억을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나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그 많은 돈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강 살리기 제16공구 별곡지구 사업 관련

Q 한강 살리기 추진을 위한 사전 사업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으며, 올여름 많은 가우량으로 인해 그 지역이 침수 되었고 현재 설계서상에 지반고가 141m로 되어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계속 침수가 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16공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지반고를 수몰선 이상, 145m이상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또한, 사업추진시 생태습지 및 자전거도로 연장, 생활체육광장 조성 등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 한강 살리기 사업 16공구에 대한 사전 설명회는 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충청북도로 대행 사업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충주에서의 설명회는 도에서 추진했으며, 지역별로 한 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반고는 현재 141m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143m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이 지역이 계속 침수됨에 따라 최대한 140m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대안을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단양군과 협의해 최대한 단양군민과 단양군이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이광희 의원(교육위원회)



⚡ 연합고사 관련

Q 연합고사 부활의 취지는 무엇이며, 연합고사의 효과 및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A 이기용 교육감 | 연합고사 부활의 취지는 교과 의 비중을 미반영, 내신성적을 위한 학교내 경쟁 심화, 고등학교 입학 전형 당시의 학력 수준 미 반영 등 순수 내신제 고입 전형의 문제점을 보완 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연합고 사 대비를 통한 학습동기 강화 및 면학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합고사 효과로는 내신성적과 연합고사 병행 에 의한 고입전형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국가 수준의 평가 준거 제시로 교수·학습력 제고,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제고, 학생 의 학습동기 유발과 면학분위기 조성, 학년말 교 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으로 고교진학 후 수학이 유 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연합고사에 대한 학생의 심 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 교육과정 관련 대책

Q 현 시험정책에 대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시험부담 및 평가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및 의견은?

A 정일용 부교육감 | 2008년 충북 학생들의 학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 되고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조금 늘어났지만, 최근 충북 학생들의 실력이 전국 최우수 수준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향후 도 단위 평가는 여론을 수렴 후 반영 예정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점검하였으나, 미비했던 점은 향후 교육과정의 파행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학업성취도평가관련

Q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 대책의 추진상황은?

A 정가흥 교육국장 | 교육과정 파행과 부정행위 조장 등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는 평가로 인한 학교간 과열 경쟁과 교육과정 파행 운영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신백초 관련자에게는 관리감독 소홀 및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하였습니다.

Q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바, 그 내용은?

A 정가흥 교육국장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줄인 우수학교만 공개 건의, 서답형 채점을 전문 기관 용역으로 교사의 업무를 경감, 평가 결과를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자료 및 교수학습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Q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일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도 감독 대책은?

A 정가흥 교육국장 | 단위학교별 평가 관리책임자 연수 강화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 평가시행 매뉴얼 보급으로 공정한 시험관리가 되도록 지도, 단위 학교별 학부모 부감독제 적극 권장,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 제정 추진 예정입니다.



도 정 질 문

박문희 의원(산업경제위원회)



⚡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Q 충북도는 지난 해 6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생명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8.66㎢ 규모로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A 김종록 정무부지사 |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오송 바이오밸리, 오창 BIT, 증평의 GT 등 BIGT 융합 클러스터화가 가능하고, 바이오 밸리 등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여건이 우수하며, 준공 및 조성중인 산업단지 위주로 기반시설이 거의 완비된 최소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국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반드시 신규지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자유구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수년간 세금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혜택을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에게 준다면 많은 해외기업들이 국내로 이전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김종록 정무부지사 | 현재, 관련법에는 외국 기업에게만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경제자유구역내 지정시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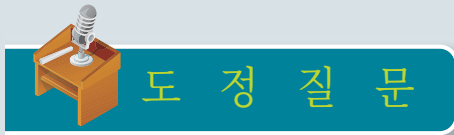
Q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꿀벌낭충봉아 부패병의 피해농가수가 한봉과 양봉을 합쳐 595가구에 18,464군(통)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14,658군(통)이 소각되었습니다. 꿀벌이 낭충봉아 부패병에 걸리면 모두 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인해 한봉과 양봉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생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염병에 의한 폐사이기 때문에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강길중 농정국장 | 바이러스 질병인 낭충봉아 부패병은 법률에 명시된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낭충봉아부패병을 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동 법이 발효되면, 방역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질병 발생시 살처분, 이동제한 등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에 종합적인 예방 및 방역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도 차원에서는, 낭충봉아 부패병 방제지원을 위해 2011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축산위생연구소 꿀벌 질병진단센터를 통한 검진을 한층 강화하여 동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경 의원(정책복지위원회)



쌀 값 안정화 대책 관련

Q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 차액에 대해 충북도의 지원이 가능하신지?

A 이시종 도지사 |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 조례 제정'시 쌀 품목도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등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쌀 지원 방안은 가능하신지?

A 이시종 도지사 | 교류협력기금 4억을 활용, 도에 보관중인 재고미 구입을 통한 대북 쌀 지원방안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쌀의 수급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기금을 통한 쌀지원 사업은 검토를 배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도 자체기금을 활용한 대북 쌀 지원사업은 현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Q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A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 지방재정 상황과 전국적인 추진상황 그리고 국가 정책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은?

A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방법은 급식인원이 센터당 10만명 정도는 되어야 규모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학기 중 급식일수가 200일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개소당 30억원이 넘는 설치·운영비용이

드는 학교급식만을 위한 지원센터는 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단위에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은 바람직하고 생각됨.

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과 관련

Q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계획과 충북 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견은?

A 강길중 농정국장 | 정부에서는 현행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8개 직불제사업을 2013년부터는 1~2개의 직불제로 통합하여 '농가소득보전 직불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9개 품목을 선정, 도상연습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정부의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액 등이 확정된 후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경영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Q 한강10공구 작천보 개량, 한강7공구 하천습지 준설, 백곡저수지 등 독 높이기사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A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 금강 10공구의 작천보 개량 사업과 한강 7공구내 비내지구의 단양 쪽부쟁이, 장천지구의 생태습지 보호사업 그리고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처리 의안 [제295회 임시회]



■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 등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추가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 시행을 위한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특례규정 마련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예정지를 보은군 지역의 도유지와 군유지 간 상호교환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민이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 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학생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직속기관으로 개편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주 소재지를 변경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습환경조사 및 학교급식관련시설 점검 업무가 본청과 지역 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 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제천 수산면 일부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제천시청의 교육지원 혜택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 보은군 기숙형중학교 운영에 따른 통폐합 중학교의 학구 조정

‘배우고 연구하고’ 크게 달라진 도의회 해외연수

정책복지·교육·건설소방위원회 선진제도 비교연수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 국외연수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정책복지위, 교육위, 건설소방위가 연수를 다녀왔는데 연수 주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국내 관련기관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 비교연구를 통해 선진제도를 실질적으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월 23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정책복지위는 지방의회를 방문해 주민복지 정책개발 및 조례, 저출산 대처 방안 등을 파악했다.

또 노인 요양, 아동전문보육 프로그램인 ‘베스트 스타트’, 다문화, 장애인 등 각 분야별 각 전문시설을 방문해 정책과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파악했다.

10월 25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교육위는 농·산촌지역 학교를 찾아 작은학교 운영현황,



지역별 특성화 학교 운영실태, 학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학교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건설소방위는 10월2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와 항주 등을 방문해 도시계획 및 교통, 공공디자인 정책, 건축물 안전관리, 지진 등 재난대비 등을 비교연구 했다.

지방교육자치 약화에 대한 우려 표명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충북지부 소속 교사 12명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도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사려 깊은 판단과 조처를 촉구해 왔으나 징계를 강행한데 대하여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징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상식을 벗어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 징계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간섭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지방교육자치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4대강 사업 입장 표명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지사가 4대강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

첫째, 충청북도의 4대강 사업 ‘원칙적 반대’ 입장에 생각을 같이한다.

둘째, 금강 10공구 작천보 개량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량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셋째, ‘독 높이기 사업 등 그 외의 사업’에 대한 회견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한다.

정례회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준비 돌입

의원 연찬회, 정책자료 수집·분석 등 분주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위원회별로 연찬회와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충주 수안보 파크에서 연찬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강의와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을 벌였다.

또한 전체 의원들은 지난 10월 13일 의회 회의실에서 박봉국 지방의정연구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연찬회를 가졌다.

개별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집행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



장선배 의원(정책복지위원회)은 10월 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개최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이광희 의원(교육위원회)은 10월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건전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적지원제도 도입 가능성 여부 등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격려



김형근 의장은 10월 7일 경남일원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충북선수단의 경기장을 방문하여 우리 충북의 명예를 걸고 선전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도의회 홍보관련 대책 회의



임헌경 도의회 대변인은 10월 5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각 상임위원회 홍보담당자와 의정활동 홍보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홍보활동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조했다.

‘궁금해요, 만나고 싶어요!’

여성민우회 초청 학생·학부모의정활동 체험

10월 13일 충북여성민우회 주관으로 도내 초·중·청소년과 학부모 등 40여명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김형근 의장과 최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의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본회의를 방청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등 의정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궁금해요! 만나고 싶어요!’란 주제로 실시된 이번 의정체험 행사에서는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이 하는 일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정치에 대해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여성민우회 김혜란 사무총장은 이번 의정체험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버리고



올바르게 성장하여 정치에 대한 꿈과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종사자 격려



10월 5일 김형근 도의회 의장이 제천에서 열린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하여 엑스포 조직위원회 및 행사관계자를 격려하고 전시장을 둘러 보았다.

역대 도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충청북도의회는 10월 22일 역대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대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도정발전을 위해 역대의장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국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충청북도의회 우호교류 방문

충청북도의회와 우호교류 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단장 유복 부비서장 등 12명)이 10월 12일 양 지역 간 우호 증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흑룡강성 대표단은 김형근 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2010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엑스포를 참관하고, 10월 13일 오창산업단지 내 바이오독스텍과 청남대를 시찰한 후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방문인사를 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흑룡강성은 지난 1996년 자매



결연을 체결한 이래 행정, 문화, 관광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교류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첫 출근 그때의 초심으로 도민의 진정한 뜻 받들 터



김영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새 4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사람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과거는 항상 빠르게 느껴지고 현재는 더디게 흘러간다고 하지만 의원이 되고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은 내 삶의 어떤 시점보다 유난히 빨리 지나 간 것 같다.

초선의원으로서 연속되는 낯선 경험과 고민들이 시간의 속도를 높였던 것 같다.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시작으로 시작된 의원생활은 결산심사, 추가 경정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수차례의 연찬회를 경험하면서 책상위에 한없이 쌓여가는 자료의 양 만큼이나 나의 의정활동 경험은 차곡차곡 축적되어지고 있다.

신입생 시절, 반 배정을 받아 책상과 새 교과서를 받고 함께 지내야 할 낯선 얼굴들과 만났을 때의 두려움과 설레임을 다시 느끼는 듯 했다.

의정활동의 시작은 행정문화위원회라는 반에 배정되어, 도청서문과 시내가 보이는 4층 창가 쪽 자리로 2년 동안의 내 자리가 정해졌다. 공부해야 할 많은 책과 자료들을 수령하고, 부반장 격인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도 받아 열심히 위원회 생활을 시작하였다. 또한 세종시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교복에 새겨진 명찰대신 자주색 원안에 “議”가 새겨진 무궁화 모형의 직경 1.8cm 배지를

받았다. 사실 ‘의원배지’는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장을 입을 때면 항상 의원배지를 착용하고 다닌다. 의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가슴에 달고 다닌다.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의회 정례회 회기가 시작된다.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통제권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과 예산심의권과 조례발의·제정권이 있다.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 것이며,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

의회에 첫 출근할 때의 초심을 다시금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한다. 의원생활 중 처음으로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지금 방대한 양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내년도 예산안 자료가 나의 눈길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발로 뛰어 확인하고 각종 자료를 머리로 분석하여, 입과 손(글)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나의 활동이 집행부와 함께 변화를 이끌어내어 충북도민의 복리를 위한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충북의 밝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전화 (043)220-5124 <http://assem.cb21.net>